

아쿠아페스티벌 '여름아! 놀자' 민박업 현장 목소리 청취

임실군, 26일~8월 10일 임실치즈테마파크서 개최... 물놀이·편의시설 '풍성'

임실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이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 특별하고, 더 풍성하고, 더 신나게 이달 26일부터 열린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준비한 대표 여름 축제 '2025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을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한다.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쿠아페스티벌이 올해도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풍성한 즐길거리로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대형풀과 우스풀, 슬라이드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특히, 올해에는 폭염 대비 대형 그늘막 텐트와 에어컨이 설치된 쾌적한 쉼터를 더 확대하여 마련했다.

여기에 풀풀 텐트와 캠핑형 텐트, 파라솔 쉼터 등 다양한 휴식 공간도 제공



2025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포스터

시스템 슬라이드가 올해도 이벤트 광장 계단에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린이 DJ 파티, 댄스 공연 등 특별 이벤트가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8,000원, 임실군민은 6,000원이다.

오후 2시 이후 입장 시에는 2,000원 할인이 적용되며, 입장권 구매 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2,000원 상당의 교환권도 제공된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인 만큼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다양한 물놀이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에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공해 방문객들이 더욱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인기 만점 시설인 초대형 슬라이드도 설치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높이 10m 길이 40m에 달하는 초대형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회원들과 소통 나서

남원시는 3일, 산내문화센터에서 '촌향뿔' 특! 특! 지역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민박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민박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박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 민박업 현황 및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민박 운영자의 재난지원금 수령 문제 △남원시 민박 통합 홈페이지 개설 및 보조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되어, 시에서는 관련 법령을 고려한 제도 개선 검토와 함께, 민박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민박 간판 통일화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썬선, 게스트하우스 등과 혼

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표준 현판 사용 권장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민박은 남원 관광의 가장 앞에 서 있는 현장이고, 남원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얼굴이며,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남원의 인상으로 남는 만큼, 민박은 이제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민박업의 품질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에서도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남원시,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서 3년 연속 선정

남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계획부터 운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남원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사업전략 투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남원시보건소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청소년 건강해소를 위해 건강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틈새운동 △신체활동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2024년 우수사례로, 임신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준비 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지원과 남원시 협의회와 협력하여 '현방 난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대면, 비대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전략을 도입해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소에 앞장, 대면 방식

에는 보건소 내 건강상담, 건강교실, 집단 교육 등 직접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전략으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모바일헬스케어 △AI-167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 시간·장소 제약 없이 주민들이 건강 정보를 얻고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찾아가는 구강의료서비스 △가정방문 치매선별검사 등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했다.

한편 보건소는 올해는 비대면 신체활동 챌린지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읍면동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틈새운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운영하고, 한의와 기공체조 교실을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포괄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오픈검도대회·조병용선생추모검도대회 성료

남원시는 2025 남원오픈검도대회 및 제33회 조병용선생추모검도대회 가 지난 6월 27일 개막하여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회는 한국 검도계의 거목인 남원 출신 故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 2015년부터 국제 대회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이며, 이번 대회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 5개국에서 100여명의 선수와 임원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2,500여명의 선수 등이 참가하여 대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 히오키시 선수단 및 임원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조병용 선생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현화식에 참여해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2025 남원오픈검도대회 및 제33회 조병용선생추모검도대회 가 지난 6월 27일 개막하여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다.

이처럼 해외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회의 품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남원시가 세계 검도인들의 교차점이자

문화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순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한 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하절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부터 공공수역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행락객이 몰리는 시기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시 순찰

을 한층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 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감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대상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상반기 평가는 지난 연도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 징수율, 징수 신장률, 세수 신장률, 체납 차관환원율, 영치, 목표 달성도 등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 기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 450여 건 압류 및 체납 차관 환원액 30대,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2억 6,700만 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기초영농 기술교육 2기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5년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 35명을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은 신규농업인들과 예비농업인들에게 남원 지역의 대표작목을 소개하고, 기초영농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교육생들은 기초영농기술 이론교육과 귀농 및 청년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남원의 전반적인 농업을 보고 배우게 되는 데 8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4시간씩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5년 2번째 교육인력 이번 교육 특징은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기초영농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토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충원 광통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